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삼위일체 대축일(예수 성심 성월)
제32권 27호(나해) 2012.6.3

[묵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구분되어 저희에게 드러내시나
당신이 원하신 것 단 한 가지
외아들을 믿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

세상을 심판하시길 원치 않으시고
외아들을 통해 구원하시길 원하시니
세상에 외아들을 보내심은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은총.

외아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
은총과 구원의 삶이니
외아들은 저희의 그리스도 되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성령과의 친교가 이루어지오니
사랑과 은총과 친교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친교가 저희 안에 머물 때
저희의 구원은 이루어지나이다. - 框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견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이제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
주 일 낮 미사	(연) 김동길 바오로, 이태숙 카타리나, 최금옥 말찌나, 이호순 프란체스카, 이덕철 루카, 이상일 요셉, 고준희 제임스, 임홍규 메트로, 천규인 스테파노, 지정남 모니카, 고재광, 김정희, 민소예 모니카, 이정행 테레사 & 최영준 가브리엘, 이정완 마리아, 송봉규 요셉 & 송공량 카타리나
	(생) 첫영성체어린이들(22명), 유현자 안나,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유재형 요셉, 임명희 켈마, 임종택 베르나르도 & 임수연 에메리파, 최길주 다미아노 & 최경애 프란치스카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신명기(Deuteronomy) 4,32-34.39-40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행 복 하 여 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 - 성!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시고, 당신 입김으로
천상 만군 만드셨네.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생겨났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14-17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마태오(St. Matthew) 28,16-20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하고 외친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05(1절)	105	105
봉헌	261	264	254
성체	299	306	306
파견	105(2,3절)	236	312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자구적 의미와 영성적 의미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른 영성적 의미를 정의하는 교황청 성서위원회는 다음 말은 온전히 타당한 것입니다. “영성적 의미는 성령의 영향 아래서 성경 본문을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와 거기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삶의 맥락 안에서 읽을 때 밝혀지는 의미를 말한다. 이런 맥락은 효력을 내며 존재한다. 그 안에서 신약 성경은 성경의 완성을 본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 새로운 맥락에 비추어 다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맥락이기도 하다.”

“문자”를 초월할 필요성

38). 성경의 여러 의미들 사이의 관계를 재발견하면서, 이제는 문자에서 영으로 건너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 됩니다. 이전이는 자동적이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자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본문의 단순한 문자에 이미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체의 내적인 움직임에 인도되는 것이고 또한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 초월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석과정은 지적인 것으로 그칠 수 없고 또한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하며, “성령의 인도에 따른”(갈라 5,16) 삶인 교회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 현장「하느님의 말씀」제12항에서 밝힌 기준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한 초월은 성경전체와 연관되지 않은 개별적인 문학적 단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실상 우리는 단 하나의 말씀을 향하여 초월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극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초월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이 전이는 불가피하게 각 사람의 자유와도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자신의 삶 안에서 이전이를 충만하게 체험했습니다.

문자로부터, 그 문자를 전체로부터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건너가는 초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2코린 3,6) 라는 구절로 남김없이 표현하였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자유를 주시는 영은 이름을 지니고 계시며 그래서 자유는 내적인 기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2코린 3,17). 자유를 주시는 영은 자신의 생각이나 해석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계속>

사랑의 언어

우리 교회는 “본체로서는 한 분이시지만 실체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면서도 서로 구분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느”(니체아 신경 참조1) 하느님, 즉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대축일로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과 마침이 결국 거룩한 세 위격의 역동적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서로 부드러운 친교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위격의 모습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파스한 눈빛이 서로를 향하고 그 손길 하나하나가 서로를 만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방의 삼위일체 이론은 삼위일체 신비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교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교회는 한결같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신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데 어색할 뿐 아니라 인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일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결혼 심리 상담 전문가인 게리 채프먼은 자신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각 사람에게는 사랑의 그릇이 있고 그 그릇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을 구사하고 이해하는 가

장 기본적인 방법인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 접촉” 등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구사하는 사랑의 방법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을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사랑을 잘 이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회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구사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구사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엮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비가 비록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을 체득해 나가는 사람만이 하느님 사랑의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오늘(6월3일)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께서 같은 본성의 한 하느님이시라는 신비를 기리는 날입니다. 14세기 교황 요한 22세는 이 ‘삼위일체 대축일’을 교회의 공식 축일로 지정하면서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에 지내게 했습니다.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이호미 엘리사벳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김교복 레오	모은기 다 두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남성철 베네딕도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권오상 바오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권순길 체칠리아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3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첫영성체 축하합니다. ☀

◆ 주일학교 어린이 첫영성체 예식과 축하식

- 일시 : 오늘 주일(3일) 삼위일체 대축일 낮 11시 미사 중에 있습니다.
- 첫영성체 대상자 : 황카리나, 김래오, 송다니엘, 박안젤리나, 박크리스티나, 이요셉, 문세실리아, 손아그네스, 김래이철, 고리파엘, 이아그네스, 로자다 안젤라, 김마르코, 베울리아, 성헬레나, 박엘리사벳, 박클라라, 김발렌티나, 이소피아, 박베르다, 이마르코, 신엘리시아 (이상 22명)
- 예식이 끝난 후 강당에서 첫성체를 받은 어린이들 축하식이 있습니다.

◆ 백삼위 골프 토너먼트

- 일시 : 6월9일(토) 오전 11시30분
- 장소 : Los Verdes 골프코스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골프회장 ☎(213)272-3598

◆ 남가주 M.E. 제69차 첫 주말강습 신청

- 일시 : 6월15일(금)~17일(주일)
- 장소 : Poverello of Assisi 피정센터(샌퍼난도밸리)
- 신청 : 본당 ME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병옥 율리아 ☎(310)780-9055

◆ 레지오 단원 피정

- 일시 : 6월10일(주일) 오후 2시~5시
- 피정 지도 : 이상을 바실리오 신부
- 대상 : 전 레지오 활동단원, 협조단원과 레지오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교우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준비물 : 필기도구
- 점심 제공합니다.
- 문의 : 최기남 야교보 꾸리아단장 ☎(310)569-3940

◆ 한국 가톨릭대학 '해외자녀들 한국어와 한국문화 배우기'

- 일시 : 7월1일~27일(4주)
- 주최 : 한국가톨릭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 대상 : 해외교포 자녀 및 외국학생들의 한류체험
- 장소 : 김수환추기경 국제센터
- 신청 : www.catholic.ac.kr/~cukcamp
- 문의 : 이바오로 신부 ☎(202)965-1610

◆ 2012년 제25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 장소 : 엘카미노 칼리지 강당(16007 Crenshaw Bl.)
- 강사 : 김새을 신부, 백운철 신부, 정현철 신부, 조영희 신부, 한상만 신부
- 참가티켓비 : \$25(본당에서 구입시 \$20)
- 문의 : ☎(213)435-7570
- 주관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봉사회 회장 김충섭 마틴)
- 후원 : 남가주사제협, 남가주평신도협, 가톨릭신문, 평화신문 * 문의 : ☎(213)435-7570

◆ 후보 광고에 협찬해주신 후원자들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후보에 광고후원금을 보내오고 계시는 후원자들에 감사드립니다. 교우들께서는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주시는 이들 업소를 가능한한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강당, 회의실과 유아실, 2층 모든 교실을 사용한 후 비품을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등은 물론 냉난방 기기를 반드시 꺼주세요. 각 방의 창문을 사용한 후에는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시설물은 한 두사람의 손길로 관리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마지막에 성당을 나가는 모임의 책임자들은 문단속(현관문+바깥Gate)을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3일(주일) : 소공동채(떡, 김밥 \$4)
주일학교(3학년 짜장밥)
- 6월10일(주일) : 토런스 남 1반(잔치국수 \$3)
주일학교(1학년 피자)

지나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인모	강태홍	권오상	금동균	금영도	성전헌금	강숙경	강인모	강태홍	권오상	금동균	금영도
	김상규	김우용	김일선	김종선	김주량	김향선		김우용	김주량	김향선	나경흠	박종열	박현주
	나경흠	박종열	박현주	서성용	소성덕	오수인		서성용	소성덕	오수인	유경자	윤선희	윤화경
	유경자	윤석구	윤선희	윤철	윤화경	이병우		이병우	이석계	이용무	이인석	이형삼	정동호
	이석계	이용무	이인석	이재승	이형삼	정동호		지경수	황인중	황지영			
	조소영	지경수	한경희	황인중	황지영								
						합계 : \$3,865							합계 : \$2,455
미사헌금 : \$2,503							주보광고후원 : \$1,300						한남체인 도네이션 : \$300

공지사항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2012-2013학년도 주일학교 등록접수

2차접수부터 등록금이 인상되니 서둘러 주시기바랍니다.

- 1차접수: 여름방학전까지(6월30일 마감)
- 대상: 유치원~12학년
- 등록비: 첫째자녀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8월5일부터(\$140, \$120, \$100, 무료)
- 자모회비: \$40(가정당)

주일학교 종강식 및 시상식

- 일시: 6월10일 오전 9시30분 미사중
- 대상: 주일학교 학생(각학년별 우수상/모범상/개근상)
- 미사후 주일학교 수업있습니다.

한국학교 종강식 및 시상식

- 일시: 6월10일 오후 2시, 수업 마치면서 각교실에서 있음
- 문의: 김본경 올리아 한국학교장 ☎ (310)713-2669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에 입을 T-셔츠 공모전

- 대상: 관심있는 고등학생(8-12학년)
- 마감: 6월10일(주일)로 연장
- 주제: The Eighth Day(Isaiah 43,1) *당선작: 상품제공
- 제출: stephanieyoonpark@gmail.com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시: 6월29일(금)~7월1일(주일) *장소: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접수, 장소관계상)
- 참가비: 6월1일부터 \$70(no refund)

남가주 소식

제5회 2012 FIAT(피아트) 리더십 트레이닝 피정

- 일시: 6월21일(목)~24일(주일)
- 장소: 성토마스한인천주교회, 에나하임, CA
- 참가비: 무료(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참조)
- 참가대상: 주일학교교장/교사, 중고등부 사목담당자, 청년사목담당자, 학생미사 음악봉사자 등
- 피정프로그램: 기본/실질적 사목능력 교육, 영성교육
- 신청서 다운로드: www.fiat.org

미주가톨릭방송 기금마련 골프대회 연기

- 일시: 10월6일(토) 낮 12시 샷건플레이로 진행
- 장소: 패사디나 브룩사이드 골프클럽
-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합니다.

소공동체 6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최성자 카타리나 548-4645 6/8(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6/8~9 박베어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서영주 시몬 357-7829 6/15(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카토 619-7763	홍광선 요셉 543-4953 6/9(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6/13(수)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현석주 아오스딩 594-9472 6/15(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미경 스테파니아 634-6923 6/14(목)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6/16(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권오상 바오로 365-2183 6/12(화) 오후 8시 반미사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유영균 우르바노 985-2882 6/9(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최재은 베드로 997-9006 6/8(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544-4807 6/22(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유석영 레오 213-369-0687 6/8(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오현희 콜롬바 818-6930 6/12(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오후 1시
-----------	-------

구인 Paramounttariff.com (사무직 풀타임)

FMC규정에 따른 세계 유수의 회사임, 사우스베이지역
이중언어(한/영)가능자, 컴퓨터 필수, 시민/영주권자
* 이력서 e메일 요망 support@paramounttariff.com

환경의 날 담화문(요약)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을 일구며
돌보는 협력자들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창세 2,15)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어여뵈 여기시어 창조하시고, 당신 모습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우리에게 땅을 일구고 온갖 생명을 돌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자연만물에 대한 ‘섬김’과 ‘배려’라는 통치 위탁을 받은 일꾼이요, 협력자(cooperator Dei)로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창세 2,15 참조) 그런데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생태계 파괴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협력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과소비로 전 지구적 차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비료사용 비중이 심각하게 높아져 땅은 산성화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5년 동안 매년 남산의 약 17배에 달하는 산림(山林)이 없어졌고, 전 세계 5위 규모의 서해안 갯벌은 간척사업 공사로 지난 45년 동안 36%의 갯벌이 사라졌습니다. 또 인위적인 강(江) 정비 및 개발 공사인 4대강 사업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우리와 다음 세대에게 평화로운 미래를 약속하지 못하고 불안한 앞날을 예고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산을 돌보고 보전하는 ‘녹색 돌봄’을 이미 우리에게 소명(召命)으로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동일본 후쿠시마 대지진과 이로 인한 핵발전소 참사 이후 독일과 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재생 에너지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생태 문명적 전환 시점에 유독 우리나라 정부는 핵에너지를 고집하고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초록 문명(文明), 즉 모든 창조물을 돌보고 배려하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발과 물질적 가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핵에너지 확대 정책을 반대하며 자연 생태계를 돌보는 생명의 가치를 널리 알려야만 합니다. 신앙인 개개인은 일상생활에서 전기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지구 생태계를 위해 화려한 것으로 치장된 불필요한

수단과 방법들을 지양하고, 스스로 청빈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책임과 실천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한데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은 ‘보시니 참 좋은’(창세 1,10)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요, 자매인 지구 생태계의 희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 이용훈 주교

미사중의 의미

미사 중에 복사가 치는 종을 ‘미사종’이라고 합니다. 미사종을 치는 의미는 미사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청각적 신호로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미사의 종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기쁨과 환희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종을 치나요? ‘거룩하시도다’가 끝나면 사제는 성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봉헌된 예물을 축성해 주시기를 청하며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감사 기도 제2양식)

이 기도문을 바칠 때 사제는 빵과 포도주 위에 두손을 모아 퍼 얹은 다음에, 즉 안수한 다음에 십자표시를 합니다. 바로 이때 첫 번째 종을 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물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시간이 시작되므로 집중하라는 신호입니다. 사제는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계약의 피다.”(마르 14, 22-25.참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읊게 되는데 이 순간 빵과 포도주가 각각 성체와 성혈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를 성변화(聖變化)라 합니다. 이때 축성된 성체와 성혈을 사제가 잠시 높이 들면(성체거양 聖體舉揚, 성혈거양 聖血舉揚), 신자들은 우러르며 흠숭의 예를 드리는데 이때 들 어 올려진 성체와 성혈을 우러르자는 신호로 미사종을 칩니다. 그다음 사제는 성체와 성혈을 내려놓고 참례자들과 허리를 깊이 숙여 흠숭의 예를 표하는데 이때도 함께 절을 하기 위한 신호로서 미사종을 칩니다. 마지막 종은 사제가 미사에 참례한 모든 신자를 대표하여 첫 번째로 성체와 성혈을 영하는데 이 순간에 종을 칩니다. 이는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시는 순간이므로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라는 신호입니다. 이때 교우들은 영성체송을 바칩니다. 이렇게 미사 중에 통상적으로 여섯 번의 종을 칩니다.

◆도움말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서울대교구 독산1동성당 주임